

2024
Vol.04

TALK²

[특투]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Magazine

CSG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04
고고함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창신의 한 문장 09
창신인이 빛나는 순간

특뷰 [TALK² + Interview] 12
Workshop

CEO 두줄 노트 18
변화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Advertisement 21
Reignite LEAN

Manufac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3
RSM그룹

CSG News Pick (#창_뉴_픽) 28
#Nike On Air #벤치마킹 #취업멘토링

Lean 단상 34
34호 도이 머이

Trend Catcher 36
News Clipping 70호

Challenge to Move 38
결과 발표 / 티나는 칭찬 챌린지 ②: 리얼 멘토편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June 20, 2019 | @Tibet

2019년 6월 20일,
티베트 3대 성호(聖湖) 중 하나인 압드록초를 지나
해발 5,160m 넘어서는 험한 고갯길 어딘가에서
마주쳤다. 인적 드문, 동물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고지대의 자갈 틈 사이로 홀로 마음껏 본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고고(孤高)한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기량과 잠재력이
당당하게 만개하는 그 순간을 위해
현재 상황에 오롯이 집중할 뿐이다.
고고함이란 그런 것.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창신의 한 문장

창신의 한 문장

전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창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나눕니다

일상 속 '창신인이 빛나는 순간'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그 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상 속 창신인들이 빛나는 순간을 공유합니다. 평소 창신인들이 생각한 내 동료의 장점이나 탁월함을 발견한 순간을 묻습니다.



'창신인이 빛나는 순간' 한 문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과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신인의 일상 속 '빛나는 순간'을 공유하여,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창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반전매력

포스 넘치던 상사가 가족 얘기에 꿀 떨어질 때

가족과 통화하거나 사진을 보여주며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반전매력

중간 직급자들이 사소한 악습을 끊어 주실 때

건강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소한 악습들을 중간 직급자들이 나서서 끊어 주실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반전매력

프로 오지라퍼의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술 선수범해서 챙기거나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티 내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감동적입니다.

#반전매력

#값진 배려

작은 업무도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할 때

사소한 지식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진 배려

출근 전 팀원들을 위해 커피 주문을 자처하는 선배를 볼 때

팀원들을 먼저 챙기는 선배의 모습을 보면 팀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생기고 나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값진 배려

타인의 말을 존중하며 바른 말 고운 말을 쓸 때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합니다.

#값진 배려

#재능부자

알고 보니 투자 고수일 때

부동산, 금융 등 창신에는 다양한 방면의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주는 동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재능부자

센스와 재치가 넘치는 모습을 볼 때

생일이나 진급 파티 때, 축하의 의미로 동료들의 얼굴을 그리거나 케이크에 재밌는 문구를 적는 동료들의 센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재능부자

취미가 N개일 때

클라이밍, 드론, 뜨개질 등 독특한 취미를 여러 개 가진 동료들 보면 시간관리도 잘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재능부자

#성실의 표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사소한 부분도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나는 모습을 보면 받고 싶습니다.

#성실의 표본

체력 관리를 위해 출근 전, 퇴근 후 꾸준히 운동할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쁜 출근 전에 러닝을 뛰고 오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성실의 표본

자기개발을 위해 꾸준히 공부할 때

영어 회화나 본인 업무에 필요한 업무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퇴근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의 표본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Craftsmanship 양성훈련 4기

장인의 정신과 실력을 잇다

(왼쪽부터) Workshop 나염 이영원 사원, 고주파·노쏘 김예성 사원, 재봉 이나영, 이숙은 사원. 2023 Craftsmanship 양성훈련에서 이영원, 이숙은 사원은 강사와 멘토 역할을 통해 4기 훈련생들을 교육하며, 이들을 창신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시켰다.

창신의 미래를 향한 준비, Craftsmanship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창신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Craftsmanship 채용예정자 양성훈련(이하 Craftsmanship 양성훈련)'은 부산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직접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재봉 파트를 시작으로, 나염, 고주파·노쏘, CE&LAB까지 채용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년 4월 한국 HRD 협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교육 프로그램 부분(재봉 Craftsmanship 양성훈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4월 2일, 2023년 Craftsmanship 양성훈련을 통해 선발된 9명이 7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창신 본사에 정식 입사했다. 작년 10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1차로 11명을 선발했고, 이론교육 45시간, 실습 340시간, 그리고 3개월의 수습 기간 및 평가를 거쳐 최종 9명이 Workshop에 합류한 것이다.

이번 2023 Craftsmanship 양성훈련을 통해 창신에 입사한 재봉 이나영, 고주파·노쏘 김예성 사원과 이들을 비롯해 Craftsmanship 훈련생들의 멘토로 활약한 재봉 이숙은, 나염 이영원 사원을 만나 약 7개월 동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Craftsmanship 양성훈련 4기 합격자

[재봉] 반가현, 이나영, 이선경, 최예원, 최정윤, 홍승아
[고주파·노쏘] 김예성, 박동욱
[CE&LAB] 배나연

CRAFTSMANSHIP

오랫동안 전념해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

“매일의 치열한 성실함이 장인으로 성장시켜”

이숙은 사원
재봉 34년차

“기본을 바탕으로
매 순간,
온전히 최선을 다한다”



Q Craftsmanship 양성훈련 강사를 결심한 이유는

제안을 받았을 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프로그램명도 'Craftsmanship' 장인 정신이기에 스스로가 장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강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맡게 되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첫 강의를 하던 순간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의 떨림과 설렘이 합쳐진 긴장감만큼은 분명히 기억한다. 2021년부터 4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처음과는 조금 다른 떨림에 여전히 긴장된다. 그럼에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훈련생들의 의지와 열정을 볼 때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

Q 교육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재봉 실을 뜯어내고 자르는 등의 재봉 작업을 할 때, '아차' 하면 쪽가위나 송곳 등 소도구에 찔려 다칠 수 있다. 따라서 날카로운 소도구들을 몸 바깥쪽으로 두고 작업하는 습관부터, 다쳤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법까지 교육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밝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샘플은 한 쪽을 작업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불량률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온전히 최선을 다해왔고, 그 시간들이 값진 경험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는 후배 여러분들의 차례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창신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달라. 다음 세대에도 '창신 = 최고의 품질'로 기억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파이팅!!



Q 강사로서 교육생들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

교육생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반복적인 경험과 피드백을 중시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나염은 '손끝의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마다 체격과 힘이 다르고 나염 디자인에 따라 사용하는 소도구가 다르다. 즉, 좋은 품질의 나염은 손목 각도부터 힘주는 요령까지 나만의 작업 노하우가 체질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육생들이 알찬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칭찬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진심을 다해 교육했다.

Q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2022년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었던 순간이다. 창신에서의 17년 근무를 포함한 33년의 나염 경력을 모두 인정받은 것 같아 잊을 수 없다. 모범사원으로서 본보기가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중에 술을 마시지 않고 헬스, 클라이밍 등으로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기장처럼 구멍이 나 있거나 울퉁불퉁한 자재에 나염을 할 때 불량이 나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작업해 온 작업물에는 최상의 품질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담겨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Craftsmanship 양성훈련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자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키는 일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 파견근무도 도전해 보고 싶다. 체력과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기술을 전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란다.

Q 멘티에게 한마디

2022 Craftsmanship 3기에서 함께한 멘티가 지금 군 복무 중이다. 인성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훌륭해 나염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멋지게 복귀해서 앞으로 창신 나염팀의 주축으로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



이영원 사원
나염 33년차

“모든 작업물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나만의 노하우”



CRAFTSMANSHIP

오랫동안 전념해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

“ 배움을 향한 진심으로 창신의 정신과 실력을 이어가겠다 ”

이나영 사원 Craftsmanship 4기 | 재봉

“ 신발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어요!
신발 제조의 전체 공정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



Q 멘토에게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멘토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목표다. 교육을 듣고 현장 실습을 해보니 '손맛'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감각적으로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샘플의 품질이 달라지더라. 사소한 것도 질문하면서 멘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재를 지그재그 재봉으로 연결할 때, 재봉 부위가 너무 울퉁불퉁해져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멘토님께 도움을 청하면, 완벽한 품질의 샘플을 똑딱 만들어 주신 후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절로 존경심이 생긴다. 디테일한 코칭 덕분에 지금은 갑피를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실력으로까지 성장해 뿌듯함을 느낀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고등학생 때 우연히 실습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패턴 조각들이 이어져 신발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 뒤로 관련 프로그램을 찾던 중 창신의 Craftsmanship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즉시 지원했다. **재봉을 배울수록, 신발이 재미있고 신발 제조의 전체 공정이 궁금하다. 장기적으로 신발 제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진 이유다. 올해 입사와 함께 경남 정보대학교 신발 패션과 1학년으로 입학해 재학 중이다. 퇴근 후 대학에 다니며 신발 산업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고, 직접 설계한 패턴으로 갑피를 재봉하고 제조하는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담당 공정을 넘어 신발 제조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Q 이숙은 멘토에게 한마디

항상 아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진다.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지, 직장 선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 등 **건강하게 일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아직 학생 때의 습관이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며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멘토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워 재봉의 인재로 거듭나겠다.



Q 적응을 위해 가장 노력한 부분은

선배들과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MZ 세대라는 이미지 때문에 혹시 나를 낯설게 여기실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후배이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후배**가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선배들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작업 기준 가이드인 PFC(Process Flow Chart)를 통해 작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날의 날씨, 자재 상태 등에 따라 자재가 말리거나 접착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다. 먼저 말을 걸고 일상을 물으며 조직에 자연스럽게 소속되려 했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Q 지난 7개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처음으로 불량률을 냈던 때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좌·우발 부품을 반대로 끼운 채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장님까지 안 계셨던 날이라 하루 종일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불안했다. 처음이라 좋게 타일러 주셨지만, 너무 아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확한 작업을 위해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노소 전후 공정에서 발생한 컬러 또는 품질 불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신발 제조는 단 하나의 작업이라도 잘못 이루어지면 전체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전후 공정에서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더라. **창신이 쌓아온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디테일까지 챙기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Q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서투른 부분도 많았는데, 진심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다.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무 교육과 함께 정신적 지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직 1인분을 해내기 급급하지만, **샘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2023 Craftsmanship 양성훈련 9명의 입사자를 대표해 **창신의 미래 세대**로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4기의 성장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예성 사원 Craftsmanship 4기 | 고주파·노소

“ 창신의 품질은
저희가 이어갑니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 변화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를 리드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변화는 익숙함이란 안전지대(Comfort zone)에서 벗어나 불편을 감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때로는 기득권도 내어 달라고 한다.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는 저항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항의 강도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조직에 대한 신뢰로 줄일 수 있다.**

“We are the change that we seek”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2008년 2월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미국 제44대 대통령)가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말이다. 다른 사람이 가져올 변화 혹은 더 나은 시기 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자신 혹은 조직이 바라는 목표가 실현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희망하는 **미래 모습이 담긴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능동적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그려낸 변화의 시나리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Notice

광고 페이지

디지털 사내보 TALK²는 창신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게재 가능합니다.

- 문의

Communications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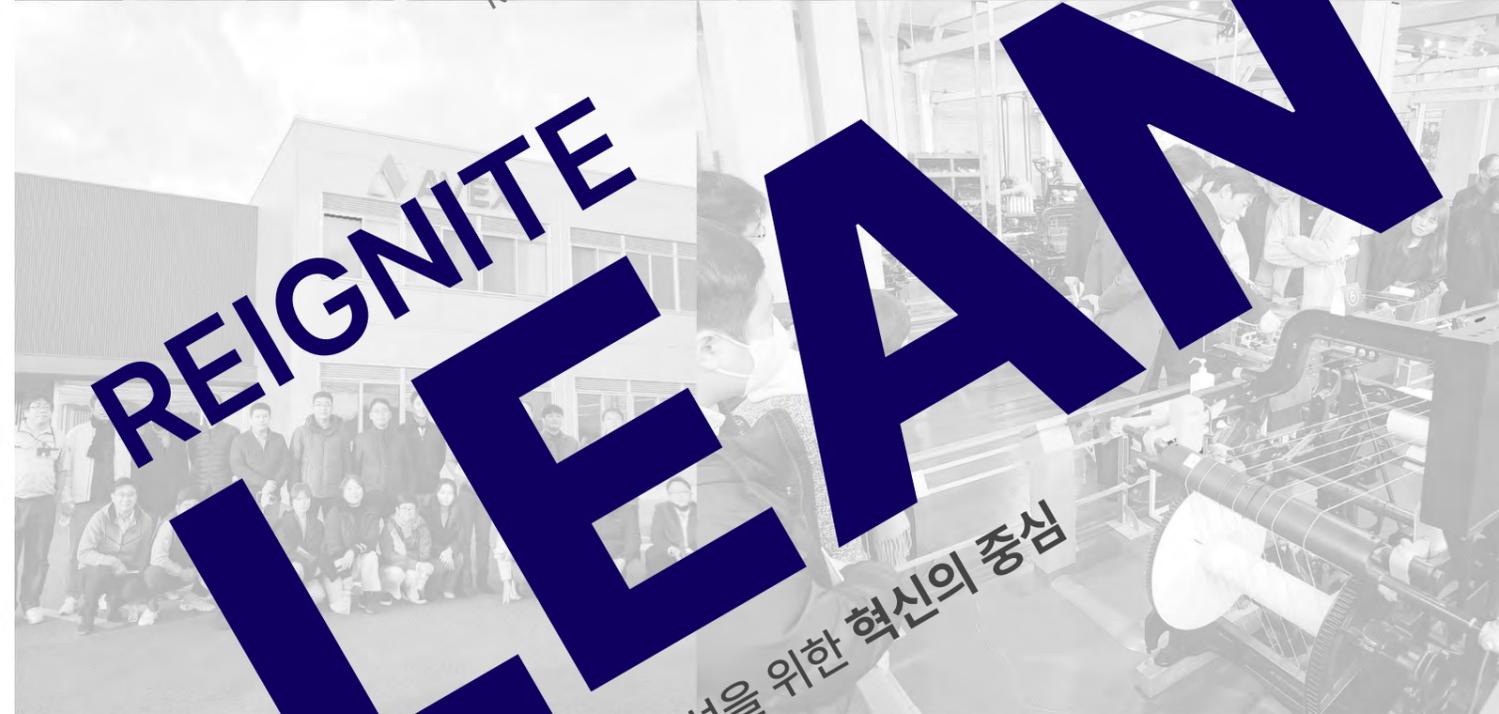
TALK²



LEAN 도입 - 1998

NOS (Novus Ordo Seclorum) - 2002

NITC (NOS Innovation & Training Center) - 2005



REIGNITE LEAN

VISION 2028 달성을 위한 혁신의 중심
LEAN을 재점화하다



2023 - TPS 연수

2024 - Reignite LEAN

2028 - The AceMaker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u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MOVE TO ZERO

지속가능한 창신의 미래를 위한,
RSM의 끊임없는 노력



서영석 RSM그룹장은 5월 3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CDC VGM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RSM그룹 구성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창신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 및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RSM그룹을 HS팀(Health and Safety)과 ES팀(Environmental Sustainability)으로 분리하여 안전,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SG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RSM그룹 및 Traceability TF팀 담당자들을 만나 창신의 ESG 경영의 현황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RSM그룹 / HS팀 고은정 부장 인터뷰

창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HS팀 고은정 부장을 만나 꾸준히 성장해 온 창신의 안전 관리 노하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HS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HS팀은 **Health and Safety, 안전·보건팀**이다. 본사를 비롯한 해외법인의 안전 및 보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각 나라별 안전보건 교육을 비롯해 법규 준수, 고객사 안전 보건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창신의 모든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최근 성과

2023년 VJ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왕립 재해예방 기관(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이하 RoSPA)**에서 Silver Award를 수상했고, 올해는 RJ와 QD가 Silver를, VJ는 한 단계 더 높은 **Gold Award**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RoSPA는 매년 전 세계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리더십의 안전에 대한 참여도 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창신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5년에는 JJ도 RoSPA에 도전할 계획이다.



Q 일하면서 보람된 순간은

매년 노무 및 안전, 환경, 폐수 관리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는다. 최근 영국산업 안전보건협회 (IOSH,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변혁적 리더십 안전 프로그램(Transformational Leadership Program)에 참여했는데, 이런 까다로운 **국제 안전 인증을 준비하고 그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이 과정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체 진단 도구를 활용해 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경험은 특히 뜻깊었다.

Q 어려운 점은 없나

안전사고 발생 시 느끼는 자책감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특히 일부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상황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모든 사고와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올해 목표 및 전하고 싶은 말

해외법인의 기계 안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국제 안전보건자격증(NEBOSH, 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을 취득하여 안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 **안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마스크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참여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RSM그룹 / ES팀 김지수 대리 인터뷰

긍정 에너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신의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지수 대리. 맡은 업무를 넘어 다양한 활동으로 창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지수 대리를 만나 그간의 숨은 노력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Q ES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ES팀은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창신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팀**이다. 국내 환경 규제 준수, 고객사 및 제3자 환경 감사 대응, 에너지 감축 및 탄소 배출량 감축 활동 등을 수행한다. 현재 에너지·탄소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배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본사 및 해외법인 등 회사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고,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부심을 느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창신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발간했다.

Q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다

입사 초기 자진해서 RSM 뉴스레터를 7분기 정도 발간하며 창신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알리고 임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돌이켜보니 뉴스레터를 제작한 경험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회사의 다양한 활동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어떤 일든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매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Q 올해 목표 및 전하고 싶은 말

4월부터 진행 중인 **DSA(Data Science Academy) 과정** 수료 후, **에너지·탄소 데이터 활용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또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텀블러 사용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여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고 싶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raceability TF 팀 반성준 부장 인터뷰

회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Traceability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수많은 노력을 통해 CTS(CHANGSHIN Traceability System) 베타 버전을 구축해 낸 반성준 부장을 만나 창신의 Traceability 현황과 로드맵을 들어봤다.

Q Traceability 프로젝트 추진 배경

최근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 시행,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가결 등 국제적인 ESG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창신은 선제적인 Traceability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ESG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Traceability 프로젝트 및 TF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Q Traceability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Traceability는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제품의 '족보' 또는 '이력서'와 같다.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이후 식품과 제약, 자동차 등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신발 산업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럼에도 창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Traceability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북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써,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의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Q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그동안의 경과

2023년 12월, 고객사의 요청으로 JJ의 Traceability 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Orange 등급이 나왔다. 단순히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이었지만, 책임감을 느끼며 개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 과정에 있어 정보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자재팀에서 재단, 합포, 임가공 등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정보가 단절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SM그룹을 중심으로 PI(Process Innovation) 김태국 부장과 함께 TF팀을 구성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주간 JJ, RJ, VJ 법인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원재료 원산지 데이터 관리, 구매 공급처 정보 관리, 완제품 창고 적치 확인 절차 보완, 품질 이력 추적 프로세스 보완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Traceability 추적성과 연결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CTS(CHANGSHIN Traceability System) 베타 버전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Q 앞으로의 계획

올해 10월까지 VJ에 CTS 1.0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5개월간 VJ 맞춤형 추적성 체계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Traceability 프로젝트 2단계를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매뉴얼 제작과 변화 관리,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Traceability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낼 것이다.

Q 하고 싶은 말

Traceability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창신 구성원들의 협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김태국 부장이 가진 SAP(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관련 지식과 노하우는 프로젝트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 지금부터가 실전인 만큼 앞으로도 창신의 모든 임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창신이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Nike On Air

Paris, Nike On Air 행사

출처: Nike Newsroom

'2024 파리 올림픽'을 100여 일 앞둔 지난 4월 11일, 나이키는 파리에서 '나이키 온 에어(Nike On Air)' 행사를 통해 '나이키 블루프린트 팩(Nike Blueprint Pack)'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블루프린트 팩은 알파플라이 3(Alphafly 3), 맥스플라이 2(Maxfly 2), 나이키 빅토리 2(Victory 2), 에어맥스 Dn(Air Max Dn) 등을 포함한 총 13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존 호크(John Hoke) CIO(Chief Innovation Officer)는 "나이키의 혁신과 선수에 있어 '에어'는 여전히 성공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나이키가 에어 혁신의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나이키 블루프린트 팩(Nike Blueprint Pack)



알파플라이 3(Alphafly 3)를 소개하는 모습



나이키 온 에어(Nike On Air) 행사장 앞에 세워진 조각상
샤캐리 리처드슨(Sha'Carri Richardson) 등 나이키를 대표하는 6명의 글로벌 스포츠 선수들을 본뜬 조각상은 최대 11미터 크기로 제작되었다

나이키는 이번 행사에 남충일 CEO와 정동훈 CSO를 특별히 초청하여 파트너사로서의 창신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이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창신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나이키의 의지를 보여주는 뜻 깊은 행보로 해석된다.

정동훈 CSO는 "행사장 곳곳에서 우리 제품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나이키 경영진 대부분이 알파플라이 3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창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남충일 CEO, John Hoke CIO, 정동훈 CSO



다이나믹 에어를 처음 적용한,
에어맥스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
나이키 에어맥스 Dn
Nike Air Max Dn



에어Zoom과 반응성이 가장 뛰어난
쿠셔닝 리액트 X품을 결합한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
Nike Pegasus Premium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벤치마킹

독일 하노버 메세 방문 및 산업현장 벤치마킹

창신 경영진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24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차세대 제조 산업 기술 트렌드를 경험하고, 디지털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글 클라우드, SAP, OWL 등 글로벌 기업의 부스를 방문하여 인더스트리 4.0,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기술과 혁신 생태계를 체험하며 창신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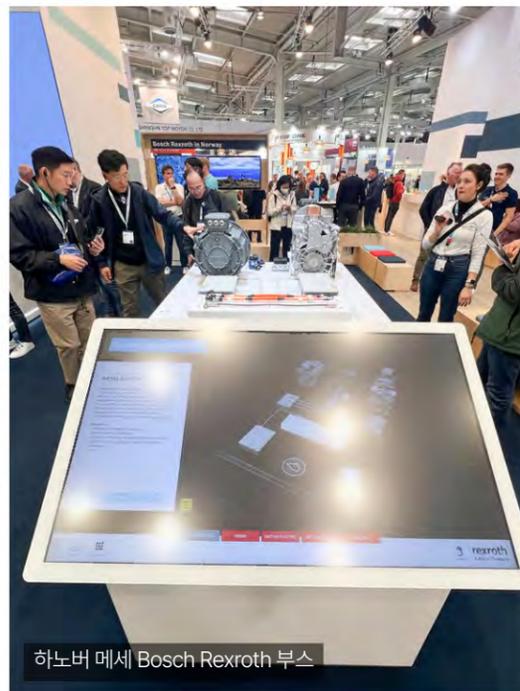
BS팀 조준기 팀장은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지식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박람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표준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Big Tech 기업 주도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창신은 이번 참관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창신 경영진은 '하노버 메세' 외에도 벤츠 공장, 다름슈타트 공과대학(The Technical University of Darmstadt), 스마트팩토리 연구기관 OWL을 방문하여 AI 및 자동화 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형 제조 시스템을 체험하고, 이를 창신 신발 제조 공정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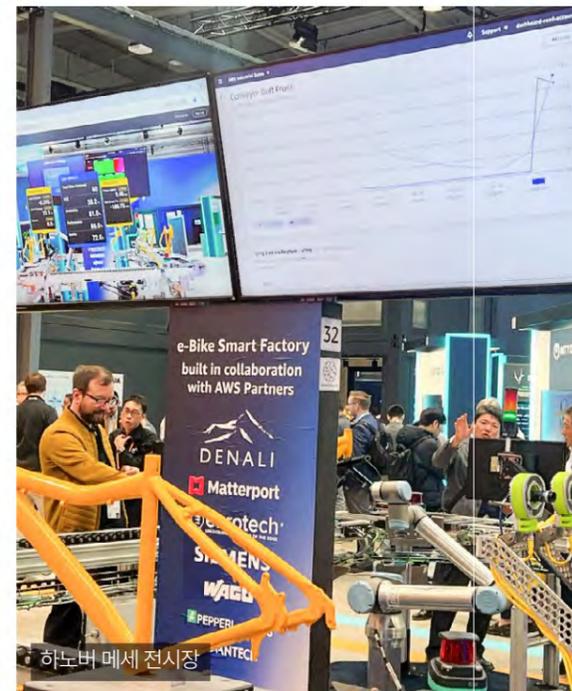
한편, '하노버 메세'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와 함께 세계 3대 첨단 기술 전시회 중 하나로, 도이치 메세(Deutsche Messe AG)가 매년 주최하는 산업기술박람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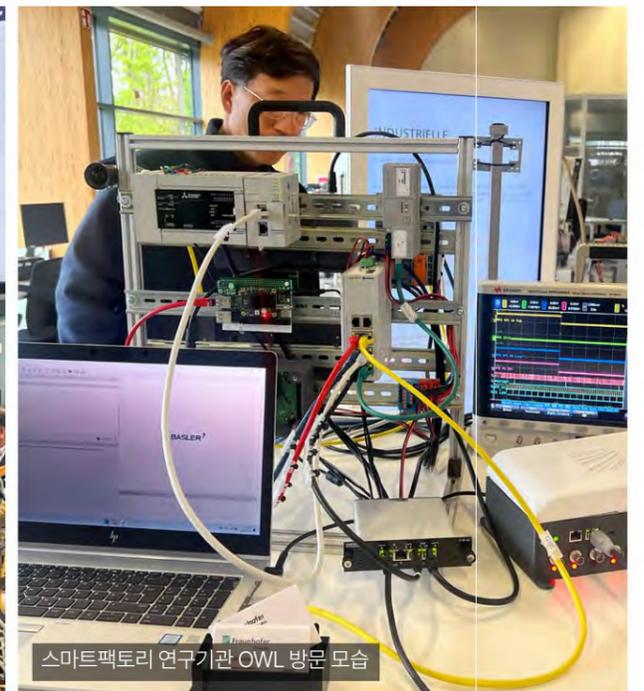
하노버 메세 SAP 부스



하노버 메세 Bosch Rexroth 부스



하노버 메세 전시장



스마트팩토리 연구기관 OWL 방문 모습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취업멘토링

부산기업-대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지난 5월 10일, 부산진구청이 주최한 '부산기업-대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에 본사 HRM팀을 비롯한 CDC TD 김도운 과장, TE 장인용 대리가 멘토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신뿐 아니라 르노코리아, KNN, LG 전자, NIKE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120여 명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강과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강란 CTO는 특강을 통해 창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많은 경험으로 역량을 키우고 본인만의 강점을 파악하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강란 CTO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창신을 소개하고 있다

창신은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사전 신청에서 가장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실무 사용 프로그램, 복지제도 등 채용 관련 질문부터 고객사 동향 대응, 사업 확장 전략 등 심층적인 질문까지 준비하며 창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멘토로 참가한 김도운 과장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창신 입사를 희망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고, 참가자들의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왼쪽부터 HRM팀 임정규 팀장, CDC TD 김도운 과장, TE 장인용 대리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Lean 단상 34호

도이 머이

(Doi Moi = 새롭게 바꾸다,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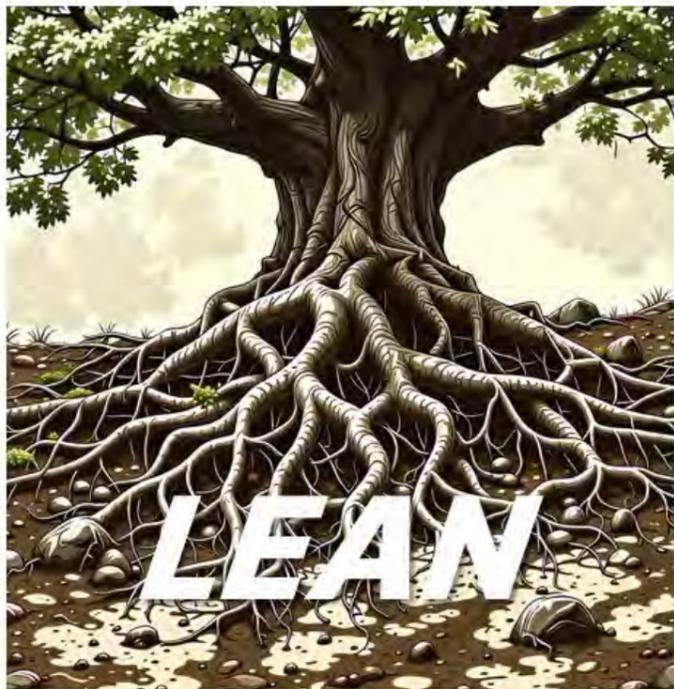
글 | LEAN그룹 전성우 대리

도이 머이란? 베트남어로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뜻의 머이(Moi)가 합쳐져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성형 AI '뤼튼(Wrtn)'으로 제작한 혁신의 뿌리가 되는 LEAN의 이미지

도이 머이의 핵심은 공산주의 기본 골격을 유지 하면서 대외 개방 및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 목시켜 베트남 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하 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배경은 베트남은 1976년 당시 사회주 의적 공업화 전략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으 나 공업화는 더뎠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친 경제 정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 어 경제난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를 타파하고자 1986년 도이 머이 정 책을 시행하면서 내부 개혁을 진행하였고 경제 체제를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 개혁, 사유재산권 인정,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 과 동시에 대외 개방을 통해 수출 증대, 무역 자 유화 등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도이 머이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추 진되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990년대에 한국, 일본, 대만 기업 등이 노동 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 동남 아시아 각국으로 생산 공장의 이전을 검토할 당 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 공세 및 값싼 노동력, 입지 여건 등을 내세워 해외 기 업 유치에 앞장섰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수많은

외국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베트남에 자리 잡게 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처럼 도이 머이 정책 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 베 트남의 수출 주도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베트남은 연평균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이뿐 만 아니라 농업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교육, 의료 수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 지표들이 크게 향상되 었다. 도이 머이 정책 이후에도 베트남은 대외 개 방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으 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체제 전환의 급격한 충격 방지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해 사회주 의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창신은 현재 AceMaker가 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 중에 있지만 변화의 중심인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혁신의 첫 번째는 Lean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기본이 바로 잡혀야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창신은 Lean을 통해 성장하였고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고 채워 Lean을 내재화 시켜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 기본 내실을 튼튼히 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한다면 VISION 2028 The AceMaker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0]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May 2024

작성 | 경영기획팀

NIKE

NIKE, 새로움과 혁신으로 전환 중 Air Max Dn 시장 반응 '긍정적'

- NIKE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새로움과 혁신으로 전환 중.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신제품 출시와 확장을 위한 활동을 가속화할 예정
- 에어맥스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 Air Max Dn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 이번 전략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4년 AIR MAX DAY에 4,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Air Max Dn을 판매할 계획을 밝힘
- Matt Friend CFO는 레트로 제품의 포화 상태를 인지하여 AIR FORCE 1과 DUNK를 포함한 클래식 제품 생산 및 발매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SNEAKER NEWS

에어맥스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 Air Max Dn



출처: Nike Newsroom

경쟁사 / 산업

ADIDAS, 2024년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 1분기 매출, 54억 6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8% 증가
- 매출 핵심으로 복고풍 신발인 삼바 및 가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지역적으로는 유럽 판매 실적이 13.8% 성장하여 매출 증가를 이끌
- 1분기 매출 호조로 2024년 수익 전망 상향 조정

어패럴뉴스

화승 엔터프라이즈, ADIDAS의 재고조정 종료로 실적 개선 예상

- 1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454억 원을 기록
- 고객사인 ADIDAS의 재고조정이 마무리, ADIDAS 제품 판매 호조가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매출 성장을 이끌
- 주력 생상품인 러닝화를 라이프 스타일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오더 증가 예상

아이뉴스 24

New Balance, 아동 샌들 '프리들920' 출시 당일 완판 및 3차 리오더 예정

- 지난 3월 21일 '프리들920' 선 발매 후 당일 완판. 이후 4월 4일 재입고된 물량 역시 당일 완판됨
- '프리들920'은 샌들, 스니커즈, 메리제인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디자인. 신고 벗기 편리하며 발가락 노출을 막아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임
- 소비자 요청 쇄도로 3차 리오더 진행 예정



프리들920

The Industry Fashion

Challenge to Move

4월호 챌린지 결과 발표 티나는 칭찬 챌린지 ② : 리얼 멘토편

두 번째 티나는 칭찬 챌린지 '리얼 멘토편'을 통해 전달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사연 중 선정된 4명에게 감사 편지와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창신에서 만난 인생 멘토와 멘토들의 소감을 들어봅니다.



To. Costing 이하나 과장

업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디테일한 이유를 항상 알아보고 공유해 주는 과장님을 보며, 저도 '왜?'라는 질문과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도 과장님의 모습을 보며 경청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직장동료를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워 보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From. 익명의 창신인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너무 영광입니다. 저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하면서도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언을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익명의 창신인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요. 같이 파이팅 합시다!

To. CSTC 김새봄 대표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대표님의 추세를 읽는 판단력과 안목은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단단한 멘탈,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From. 익명의 창신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것의 반증일 텐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저보다 훨씬 좋은 리더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To. TE 황동영 부장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도 다시 회사에 복귀해 후배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실 정도로 주변을 잘 챙기는 선임이기도 합니다. 부장님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티튜드를 많이 배웁니다.

From. TE 배창훈 대리

뜻깊은 행운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선배들에게 받은 가르침 그대로 따뜻하게 웃으며 후배들을 대했을 뿐인데, 후배들도 좋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좋습니다. 창훈 대리에게도 언젠가 이 기쁨이 동일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미래 툴링팀의 중심이 될 때까지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To. DSP 윤예빈 과장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지정된 멘토가 없었지만, 과장님께서 신발 공정에 대해 알려주셨고 현장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메일 쓰기, 리캡하는 방식 등 과장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우고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제가 입사 후 처음 리프레시 휴가를 쓰게 되었을 때, 따뜻한 휴가 보내길 바란다며 손난로를 챙겨주셨던 스윗한 과장님! 직장 선배로서도, 인생 선배로서도 존경합니다!

From. 익명의 창신인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을 뿐인데 멘토라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줘서, 제가 했던 일들을 고맙다고 생각해 준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입사 10년 만에 처음 받아본 꽃다발과 칭찬이어서 더 감격스럽고, 육아와 일의 단조로운 일상 중에 진심이 담긴 칭찬과 선물이 큰 리프레시가 된 것 같습니다!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